

로마서 묵상 5
(11/21/2020, 토)

찬양: 220(278)(사랑하는 주님 앞에)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1:11-12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 주신 메시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11 절). 11 절 -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로마교회 방문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과 함께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아마도 이 성령의 은사는 고전 12:8-11(고전 12:8-11 - 8.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에 기록된 것과 같은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어”라는 표현은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바른 믿음에 서고, 성숙해 지며,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목적을 생각한 이유는, 당시 로마교회의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롬 1:8 에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칭찬했지만, 당시 로마교회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바울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제국 치하에서 로마교회가 가진 사명이 크고 역할이 중요하면 할수록 그 교회는 영적으로 더 준비되고, 더 성숙하고, 더 훈련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생각하며 로마교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에 더욱 견고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깊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식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은사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성생활은 우리의 전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면서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해야 하며, 아울러 찬양과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도는 인격적으로도 끊임없이 연단받아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어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열매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의 모습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들은 예수님의 형상의 열매들입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12 절). 12 절 -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피차 안위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여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면, 그들도 위로를 받고 자신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역시 자신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위로를 주기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위로를 받는다고 겸손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 갑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적 훈련을 인도함을 통하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도움을 통하여 위안을 받고 힘을 내어 다시 사역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 몸의 지체로서 위로 예수 그리스도께, 옆으로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며, 기도함으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점점 더 견고히 자라나게 됩니다. **엡 2:20-22 - 20.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2.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로마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목적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우리 모두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2. 로마교회와의 관계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코로나 19의 상황의 흐름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